

# 한적 “北에 생사확인 의뢰 이산가족 200명 안팎”

## 1차 후보자 500명중 상봉의사 확인과정서 포기자 많아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지난 24일 1차 후보자 추첨이 이뤄진 가운데 이들 중 북한에 보낼 생사확인 의뢰서에 포함될 2차 후보자가 200명가량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한적) 관계자는 26일 “북한 적십자사에 생사확인 의뢰서를 보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의뢰서에 포함시킬 (2차)후보자를 200명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한적은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봉의사

확인 과정 중의사 확인과 건강상태를 문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차 후보자 중에서 상봉 의사가 없거나 현재 이동이 어려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신청자를 가려내 2차 후보자를 추려내는 식이다.

한적 관계자는 “어떤 분들은 치매가 오거나 요양원에 계셔서 상봉이 어렵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고향(북한)에 있는 가족이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체념하고 상봉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생사확인 의뢰서를 보내야 하는 날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당초에 예정됐던 건 강검진은 북한에서 생사확인 답변이 온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최종 상봉자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적은 이달 29일 북한 적십자사와 생사확인 의뢰서를 주고받고 이에 기초해 다음 달 13일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한다.

남북은 생사확인 회보서의 생존자 중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다음 달 16일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한다.

이날 한적 이산가족 상봉 민원실에는 1차 상봉 후보자에 선정됐는지 확인하려고 찾아온 이산가족들로 북적거렸으나 대부분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샀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지난 2010년 4월 물수·동결한 현지 면회 시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망이다.

남북은 지난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는 금강산으로 형식과 방법 등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봉 행사에 이용된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내금강 호텔 등이 이번에도 이산상봉 행사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북한은 2010년 10월 제18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일부 시설에 대한 동결·물수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지만 행사 뒤 다시 문을 걸어 잠근 바 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분리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금강산으로 결정되면서 현지 면회 시설의 이용 문제는 자연스럽게 남북 양측 간 실무협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 개성공단기업 설비보수차 방북

## 업종·인력 제한없이 30일까지 방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6일부터 공단 내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통일부와 개성공단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공단 입주기업과 영업소 관계자 등 모두 537명은 이날 차량 290대에 나눠타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기업들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업종·인력 제한 없이 공단을 방문해 설비 정비·보수할 수 있다. 일부 북측 근로자들도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공단에 나와 보수작업을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22~23일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공단을 방문해 설비현황을 점검하고 손상된 장비의 정비·보수 등 재가동 준비계획을 세웠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과 측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장은 “대다수 업체가 이번주 내로 부분 재가동에 필요한 준비를 마칠 수 있다”며 “9월부터는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해주기를 남북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 계획관리지역 3천㎡미만

### 판매시설 건축 허용

### 국토이용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규제를 기존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 건축이 금지됐으나 개정안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을 모든 지역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의 건폐율을 30%(현재 20%)까지 확대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행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말뉴스

# 英 FT “美英佛, 시리아 군사시설 공습 검토”

〈파이낸셜타임스〉

## 로이터 “미국인 60%, 시리아 내전 개입 반대”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와 관련해 서구 국가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시리아 공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이를 밝히지 않은 서구권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이 시리아 정부측 군사시설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3개국 정부가 군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 대부분이 현재 전쟁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습은 이르면 이번 주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일회성이며, 서방 국가들이 반군 편에서 직접적 군사 개입을 지속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랍 국가들도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아랍권 22개 국가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오는 27일 이집트 카이로의 본부에서 시리아 사태를 다루는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아흐메드 벤 헬리 사무차장이 밝혔다.

벤 헬리 사무차장은 “화학무기로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일부 중동 국가들은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인들은 자국의 시리아 사태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9%는 미군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무기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1%로 집계됐다. 무기 이상의 지원에는 군사개입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19~23일 미국인 14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2.9%다.

## 반기문 “적절한 기회 방북 검토”

### “DMZ평화공원 적극 도울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적절한 기회를 봐서 북한 당국,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방북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언급한 대로 여전히 방북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입장에 아직도 변함이 없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가 서서히 진전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우선은 관계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에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방북 문제와 관련해 신선휘 주유엔 북한대사와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신 대사와 그전에 가끔 만나 남북 관계 개선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유엔 사무

총장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해온 바 있다”면서 “앞으로 기회 되는대로 과거와 같은 이런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방북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반 총장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남북간 좋은 협의를 이뤄내서 진전이 있을 경우 유엔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도 이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법적, 정치적, 제도적인 면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이어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인식해서 올바른 역사가 미래 지향적으로 선린 국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 일본 정부 정치지도자들이 아주 깊은 성찰과 국제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최근 우경화 조짐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보여 주목된다.

## 노태우 전 대통령 입원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해방동 서울대병원 암 병동 특실에 입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갑자기 혈압이 올라 혈압 조절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10년 넘게 연회동 자택에서 투병 중이다.

한편 최근 노 전 대통령 측은 미남 추징금 230억여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함께 추징금 완납 문제를 놓고 협의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이 추징금 납부 대신 사회 기부 의사를 밝혀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 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회정동 음식점  
 대 지 1094㎡ 건 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잔여가 없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부실속 친환경 명품주택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 (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 인근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항동 생산토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오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물탈 등)제조공장

매매가격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